

외과 의사가 본

# 일 반 간 호

~생활보장이 앞서야~

<적십자 간호학교 전임강사> 정 영 민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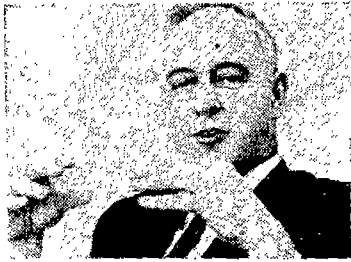
이 글은 간호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모의한 내용이다. William H. Stewart 박사는 “다른 보건 교육과 같이 간호학도 두 기둥이 동시에 발전하는 즉 학문성과 실제성이 둘 다 내포된 학문이라야 한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간호학은 모든 문화의 간호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과 간호학 자체의 육성, 이 두가지 면에 있어서 전문화된 학문으로써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여러 사람 가운데 특종인에게 많은 시간 가운데서 적은 시간, 보건간호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대신 모든 시간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호해야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Stewart 박사는 말했다.

이러한 전국민적 요청은 사실상 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모든 보건 봉사 기관 단독으로는 단 하나의 문제 해결도 할 수 없다. 말하자면 개인 직업이

나 의학, 병원이 모든 부분들이 따로따로 행동한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遙遠)하다는 말이다. Stewart 박사가 1965년 9월 25일 이래 계속 부르짖는 것은 상호 협력적인 시도(Co-operative approach)이다. 그는 현재 상호 협력적인 시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예로 개인과 단체, 지방, 각주, 국가, 이 모든 기관이 다 같이 국민 보전을 위해 창조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건 기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보건간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Stewart 박사는 근래 잡지사기자들과의 대담에서 간호인력, 간호교육, 간호원 봉급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들을 논평하고 있다.

## 1. 간호인력

William H. Stewart 박사는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한 간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 자원 가운데 하나



<Dr. William H. Stewart>

는 보건인력(health-man-power)이라고 말했다.

보건 봉사는 한 인격자와 다른 인격자간의 상호 인격적인 봉사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보건 봉사의 요청이 늘어감에 따라 보건 인력은 날로 부족되어가고 있다. 결국 다른 분야에서 보다 간호 분야에 있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Stewart 박사는 말했다.

Stewart 박사는 임상간호원과 보건 간호원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상간호원에 비해서 보건 간호원의 업무가不饱和해 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은 간호의 혜택을 못받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간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간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증가에 비해서 보건 혜택의 필요성이 늘어가고 여기에 대비해서 병원이나 보건 기관 확장은 물론 따라서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도 입원할 수 없는 무능자나 기타 여건 때문에 간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정 또는 양로원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간호원들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Stewart 박사는 주장했다.

## 2. 간호기술의 증가

Stewart 박사는 간호기술 증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간호 기술 증가 가운데 하나는 간호원을 양적으로 늘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으로 실력 배양하는 길에 있다고 한다. 양적 증가는 물론이려니와 질적 향상에 있어서 Stewart 박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간호원의 실력증가는 무엇보다도 간호원 자신이 솔선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원 자신들이 하도록 방실했다면 비능률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병원관리자가 감독해서 능률을 올려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능률적인 것은 솔선해서 하는 일이라고 Stewart 박사는 주장했다. 사실상 감시하는 사람도 그 병원의 감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결국 제일 높은 사람이 감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은 비능률적인 것이다.

Stewart 박사는 Parkison의 법칙을 들어 설명했다. “너는 네가 고용

한 요원들을 「피라미트」형식으로 조직 체계를 세워서 서로 감독하게 하며 지위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간호원의 책임과 숙련을 오히려 좌절시키고 말 것이다. 결국은 일의 능률을 얻기 보다는 오히려 잃는 것이다.” 실로 간호업무는 여러 눈에게 감시를 받는다. 간호원 동료들과 의사들 그리고 환자 자신에게 감시를 받는 것이다. 이 모든 감시자들은 그 자신이 경험한 한계 안에서 간호 상황을 평가한다. 이렇게 간호 업무는 여러 모로 둘러 쌓인 세계에게 감시를 받아 평가된다. 그러나 Stewart 박사가 전에 말한것 처럼 “간호기술의 증가는 어디까지나 의부에서 오는 감시나 훈계보다 간호원 자신이 술선택해서 하는 사명장에서 업무수행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3. 짜증나는 직업

많은 간호원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싫증을 느낀다. 그 원인은 다른 직업에 비해 봉급이 낮고, 직업적으로 나쁜 여건과 지나친 부담에서 극도로 피로해 있기 때문에 싫증을 낸다고 Stewart 박사는 보았다. 간호원은 보다 많은 사람을 훌륭히 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받고 있다. Stewart 박사는 간호원들

의 불안의 원인은 그의 글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봉급문제 뿐만은 아니다. 간호원들의 대부분의 불평은 간호원이 환자들을 간호할 수 없을만큼 지나친 부담 때문에 불안감을 가진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간호원들은 환자관찰 기록, 병실관리, 견습간호원들을 위한 훈련, 남자 보조원과 간호 보조원들에게 필요한 학습지도 등으로 지쳐 버티고 있다.

게다가 간호 봉사는 1년 365일을 1일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직업 간호원들은 가끔 계약된 시간을 다른 보전 사업가의 일하는 책임까지도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간호원은 의사, 마취사, 병원—행정, 영양사, 실림실 기술자 그리고 청소부 이 모든 사람들의 일까지도 하게 된다. 그들은 이와 같은 형편에서 환자 간호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인 것이다. 간호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동안 그들 자신의 훈련이나 간호해야 할 과업에 대해서는 지켜서 짜증이 나는 것이다. 라고 Stewart 박사는 말했다. 기자들과의 이 대담에서 Stewart 박사는 직업차증가운데 다른 한면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전문화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 윤리법칙들과 같이 전문적인 세련과 지식체제를 가진 다른 group들과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 우리가 보

건분야의 모든 직업들이 상호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는 모든 말이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다. 요지은 흔히 의사들은 간호원을 비서로 생각하고 무엇이나 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간호원의 역할과 의사의 역할은 구별된 전문분야요 이 두 전문분야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보건봉사에 이바지해야 한다. 라고 Stewart 박사는 주장했다. 과거의 간호원은 의사가 지시한 어떤 일을 해야하는 책임을 위임받은 자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공중 보건이나 공동체 영역에서 다 같이 그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보건교육에 있어서 이 두 직업이 똑같이 책임을 분담해서 일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Stewart 박사는 주장했다.

#### 4. 간호원의 봉급

Stewart<sup>7</sup> 박사는 박봉은 간호원에게 대부분의 좌절감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다. 1963년에서 1964년 사이의 통계로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교사는 연평균 \$ 6,235

비서 서기는 연평균 \$ 5,170

공장 직공은 연평균 \$ 5,075이나 종합병원과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은 연평균 \$ 4,500이었다. 근처에 미국 간호원 협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Stewart 박사는 간호원 봉급을 연평균 \$ 6,500 선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왜냐하면 알맞는 급료는 간호원 안전보장을 촉구해 주기 때문이라고 요청했다. 생활보장이 잘 되던 될수록 간호원의 일이나 능률은 향상될 것이다. 간호원의 일하는 시간이나 노고나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도 충분한 생활보장이 잘 되어야 간호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병원 요원들과 정비례해서 급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 5. 교 육

Stewart 박사는 보건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과거의 교육제도는 중세적인 경향이 많다고 비판하고 각 보건분야가 보다 더 전문적 특징을 가지도록 그 한계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간호교육의 초점이 병원 학교 교육에서 대학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현상은 적 좋은 경향이라고 Stewart 박사는 말했다.

요즈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은 간호학 연구에 있어서 전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보다 더 깊이가 있는 간호학을 공부하려면 학문적 깊이가 있는 학중에서 공부해야 한다. 학사과정을 마친 간호원은 병원, 공중보건소 그리고 보건공동체 기구 등에서 실습을 받아야 한다. 간호교육을 고등학교 정도로 교육한다면 그 학문적 실

제적 기반은 너무나 약하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모든 사람들은 의학이나 약학이 학사 학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간호학도 학사학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직업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에 세계는 눈부시게 발전되었다. 생물학도 급속히 발전했다.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생물학을 고등학교 정도의 간호교육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다 충분한 간호교육은 역시 종합대학 분위기에서 간호학문을 전공해야 폭넓고 깊이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현 간호원중 약 85%가 병원 간호학교에서 교육받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은 점차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정되어 가고 있다. 의학은 학문에 기초해서 활동하는 전문적 직업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기술이다. 이 기술자들은 학문과 실습을 충분히 교육 받는다. 간호학도 의학과 마찬가지로, 간호학도 학문과 실습이 학문적 기초 위

에서 균형있게 발전해서 보건 봉사에 이바지하는 전문적 기술이다. 의학과 간호학의 관계는 엄밀히 구별된 두 영역이며 이 두가지 전문분야가 상호 협력해서 보건 봉사에 공헌하는 것이다. 간호학 자체 내에도 전문화된 임무가 있어서 그 전문분야에 성실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간호학과 의학 그리고 간호학 내에 각분야의 한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점차 각분야가 그 한계를 분명히 해서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도 특수성을 인정 받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간호교육을 보다 철저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년 혹은 3년, 4년, 6년을 졸업한 간호원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그들의 임무가 결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병원, 자기관이나 전문분야 요원들과 상호 협력해서 보건봉사에 원만을 기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고 Stewart 박사는 말했다.

(American Journal of Nursing  
에서

<28 page 에서 계속>

18.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4, 89, 35.  
19. American Nurses' Association, "Functions Standard & Qualifications for Practice for Educational Administrators & Teachers"

New York, 1963.

20.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3, 69, 18.  
21.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2, 49, 15.  
22. Wld Hlth Org. Techn. Rep. Ser. 1950, 24, 14.